

금요 양성 2025년 10월 3일

성 프란치스코의 전이에 대한 묵상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전이는 그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간 순간을 기념한다. 10월 3일 저녁에 거행되는 전이 예식은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는 행사가 아니라, 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며,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형제애의 의미를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전이 예식의 의미는 프란치스칸들에게,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 성 프란치스코는 1226년 10월 3일, 포르치운쿨라 성당에서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선종하였다.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은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비롯한 초기 프란치스칸 자료들에서 잘 전해지고 있다. 전이는 겸손과 가난, 그리고 그리스도와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프란치스코의 완전한 회개 여정의 절정을 이룬다. 역사적으로, 전이 예식은 거룩한 분의 죽음 당시에 행해지는 철야 기도와 기도의 중세 관습에서 비롯되었는데,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서 준전례적 기념 행사로 공식화 되었다. 세기를 거치며 이 기념은 작은 형제회, 가난한 클라라회, 제 3회 TOR, 재속 프란치스칸회,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추종자들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었다.

+ 전이(Transitus)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는 영적 통과(여정)이다. 라틴어 *transitus*는 “건너감(passing over)”을 뜻하며, 프란치스칸에게 이 ‘건너’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 성 프란치스코는 죽음을 ‘자매’로 받아들였고, 평화와 신뢰의 정신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전이의 영적 유산은 파스카 신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2026년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는 이를 “성 프란치스코의 부활(Easter of St. Francis)”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죽음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도록 초대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임을,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온 삶-내어 맡김, 용서, 희망으로 특징지어진 삶-의 완성임을 상기시켜 준다. 전이는 신자들에게 영적 가난을 받아들이고, 삶의 기쁨을 알고, 도전을 은총의 순간으로 여길 것을 요청한다.

+ 전이(Transitus)는 형제적 행사로 기념될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 둘러싸여 죽기를 원하였고, 그의 마지막 말씀은 형제들과 모든 영적 ‘아들딸들’에게 내린 축복이었다. 오늘날 전이 예식은 공동체 안에서 거행되며, 성경 봉독과 찬미, 기도를 통해 모인 이들에게 일치의 정신을 넣어 준다. 형제적 측면은 단순한 동반 의식을 넘어, “형제애(fraternitas)”와 상호 돌봄이 표현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전이는 프란치스칸 가족이 겸손, 단순함, 사랑이라는 프란치스코의 가치를 살아내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전이 예식에서 작은 형제회 수도자들, 클라라회 수도자들, 재속 프란치스칸들 이 서원/서약 갱신을 한다. 또한 공동체가 임종을 맞는 이들과 함께하며, 각자가 처한 상실의 때에 서로를 지지하며, 성인들의 통공을 경축하도록 초대한다.

+성 프란치스코 전이(Transitus) 기념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임을 기억하도록 매년 우리를 초대한다. 전이를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프란치스코의 죽음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모든 피조물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새 생명을 신뢰하라는 그의 지속적인 영감을 함께 기린다.

이 주제는 Microsoft CoPilot의 도움을 받아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연구되었다: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줄리엔 그린의 *하느님의 바보: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시대*, 레지스 J. 암스트롱, 웨인 헬만, 윌리엄 쇼트의 *성 프란치스코: 초기 문헌*(I-III권), 프란치스코 작은형제들, “성 프란치스코 전이를 기념하기 (OFS Australia), 일리아 델리오, *하느님의 겸손: 프란치스코적 관점, 프란치스코 미디어의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전이”, 성 프란치스코의 잔 꽃송이*[복된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의 행위]

토론, 묵상, 또는 개인적인 주석

+프란치스코 성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읽어 보시오. 어떤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영감을 줍니까?

+ 내년도 2026년은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 800주년 기념해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올해 전이예식에 참여 하였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나요?

+도전: 2026년에는 전이 예식에 참여하거나 형제회 자체 전이예식을 계획해 보시오. (계획하는 데 일 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